

번호: PO-EM-016					
제 목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의무 규제순응도 조사연구 Survey on regulation compliance for new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				
저 자 및 소 속	최재욱, 안형식, 박희찬, 윤석준, 기명, 양혁승, 조준희, 이선영, 김호임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분 야	환경의학 [산업보건]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의무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지도 및 순응도를 조사함으로써, 규제정책의 실태를 평가하여 해당 질환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입안과 정책 집행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p> <p><b>방법:</b> 기존의 문헌 및 설문을 참조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2004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주, 근로자, 규제 집행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장 선정은 사업장 규모(소, 중, 대)와 산업의 종류(13개 업종)에 따라 설정된 39개의 군에 대해서 1,000개의 사업장을 군의 크기와 작업관련성 질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and seriousness) 무작위 선택(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p> <p>설문지의 구성은 첫째, 규모, 업종, 지역 등과 같은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작업관련성 질환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셋째, 사업장이 규제를 따랐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넷째, 지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p> <p><b>결과:</b>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54%에 불과하였으나, 50인 이상은 80%, 300인 이상을 보았을 때는 94%로 조사되었다. 규제에 대한 준수율 역시 전체 사업장의 준수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50인 이상에서는 준수율이 87%에 이르렀다.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의무의 경우 50인 이상만을 보았을 때도 인지도는 77%, 준수율에서는 63%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인지도, 이해도, 준수도 등 전반에서 낮았으며,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 필요성에서는 다른 집단과 비슷하였고, 집행력은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p> <p>근골격계 질환의 인지적 준수율은 경험적 준수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 규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지적 준수율을 묻는 질문에서 보통 혹은 잘 지킨다고 응답한 사업자의 비율이 24.7%에 불과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8.9%를 차지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식 활성화가 필요하다.</p> <p><b>결론:</b>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의무에 대한 규제의 인식도는 조사 대상자의 그룹에 따라 설문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 그룹 상호간에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상호간에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강구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p> <p>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기준의 설정 및 적용은 체계적인 전략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 근로자 및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방안 수립, 사업장 규모별 접근방식의 차별화, 정책수단의 구체화, 자율규제의 역량 강화와 같은 구체화된 접근방법의 모색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p>					